Entertainment p/18
걸그룹 CLC '착한 데뷔'

Sports p/20
류현진 수비 난조 탓 3실점

LG 전기차 검토 끝냈다

수익성 있다 결론… 어떤식으로든 완성차 만들 듯

관련기술 확보 마무리 수준… 애플·삼성과 3각 경쟁

젊은피 SKT 장동현號 연이은 암초에 진땀

미완의 파이시티 수사 포스코-영포라인 고리?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미완의 파이시티 수사…이번엔 뿌리 캔다?

포스코-토착세력 유착 의혹 중심에 파이시티 박영준 자금 관리인
이동조 회장, 정준양-정동화-박영준 잇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설도

2012년 검찰의 파이시티(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비리 수사는 '영포라인'로 대표되는 경북 포항 지역 토착세력과 포스코 간 유착을 파헤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착 비리의 뿌리까지 캐내지 못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사법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전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를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완의 파이시티 수사가 남긴 비리의 뿌리를 이번에는 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시티 수사의 결론은 파이시티 사업자 측에서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를 위해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은 많았다. 포스코건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게 대표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 정동화 전 부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초 회장 취임 직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냈고, 정 전 부회장은 플랜트 사업부문 부사장이었다. 정 전 회장이 회장에 오른 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의 사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부회장이 된 일은 그 후의 일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 부회장,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

정 전 회장은 박 전 차관이 개입해 회장직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박 전 차관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이가 정 전 부회장이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인 제이엔테크(가게설비)의 이동조 회장과 친분이 깊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과도 친분이 깊다. 이 회장은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차관과는) 어릴 때부터, 순수할 때부터 많은 대화를 한 사이고 친한 동생이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내 속도 영준이(박 전 차관)가 다 알고 그런 사이"라고 말했다. 또 "(정 전 부회장과) 오래된 관계다. (정 전 부회장이) 부장에 오르기 전인 김영삼정부 때부터 친했다. 내가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그도 거기 회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을 중심으로 박 전 차관과 정 전 부회장이 이어지고, 다시 정 전 회장으로 연결된다.

핵심 연결고리인 이 회장 역시 파이시티 수사와 무관치 않다. 그는 박 전 차관의 자금 관리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더 있다. 사업실패로 한때 신용불량자 신세였던 이 회장은 2006년 제이엔테크를 창업했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 포스코건설 하청업체가 된 뒤 급성장했다. 2008년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고, 2009년에는 68억원, 2010년에는 200억원대, 2011년에는 17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포스코와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기는 정 전 회장이나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의 사장으로 있던 시기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 베트남에서 포스코 관련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현재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건설 사업에서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과의 인연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포스코 회장처럼 행세할 만큼 위세가 대단했다는 말이 많다. 포항 지역 토착세력과 포스코 간 유착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이 회장의 입이 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2012년 "내가 영준이(박 전 차관)와 친한 걸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서 눈치가 보여 사업할 때 오히려 지장이 많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수사 때 박 전 차관이 이 회장을 적극 감싸 이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예림기자 ...@metroseoul.co.kr

언론인 암살 사건 또 발생

metro Guatemala

치안부재에 국민들 분노

중남미 국가 과테말라가 언론인 암살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메트로 과테말라에 따르면 과테말라 최대 신문사인 프렌사 리브레의 다닐로 로페스 기자와 라디오 채널 라디오 누에보 문도의 페데리코 살라사르가 남부 도시 마사테낭고의 공원에서 암살당한 채 지난 10일 발견됐다.

로페스 기자는 최근 도시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공적 자금 투명성 문제에 대한 탐사 기사를 보도하면서 협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앙헬 멘데스 프렌사 리브레 편집장은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일례 없는 언론인 암살 사건"이라며 "마사테낭고의 사공무원 두 명이 로페즈 기자를 끊임없이 협박해 왔다"고 말했다.

로페스 기자의 가족들도 "현직 국회의원인 전직 시장 훌리오 루이레스도 협박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정부 청사 등에는 '마이디어에는 아이디어로 맞서야 한다. 폭력이 아니라'라는 손간판을 들고 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 시민은 "지난해에만 1300만 과테말라 인구 중 6000여명이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치안을 개선해 관광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오토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리=이국명기자

MB맨 성완종, 자원외교 검찰 수사 첫 목표

MB맨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목표가 됐다. 검찰은 18일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성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성 전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금품 제공으로 지난해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현역 여당의원에 대한 수사가 될 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경남기업 본사는 물론이고 성 전 의원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1부는 현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이다.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에 3000억원가량을 투자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관언이다. 사업의 기대 이익률을 부풀리거나 금융기관을 기만하는 행위 또는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횡령 배임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석유공사는 컨소시엄 지분의 27.5%, 경남기업은 10%를 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경남기업 본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검찰이 러시아 광구탐사로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시작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남기업은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벌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도 참여했다. 암바토비 사업 역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악화로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납했다. 2010년에는 계약조건에 적힌 내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경남기업의 사업 참여지분을 인수해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광물공사는 지분 고가 매입으로 11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지분매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암바토비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수사가 있을 경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부패와의 전쟁 선포 후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경남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한 뒤 헤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급식 담판…'벽창호' 대화

문재인 "도의회 뒤에 숨지 마라"…홍준표 "올거면 대안 갖고 왔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무상급식 담판은 '벽창호' 들의 대화로 끝이 났다.

문 대표는 18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를 찾아 회담을 했다. 하지만 양측의 강경한 태도로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문 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나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홍 지사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하했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민생 문제에 있어 어떤 단체장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통합 의지를 담아 일정을 기획했다. 문 대표도 홍 지사를 만나 "무상급식에 대해 논쟁하려 온 것은 아니고, 아직도 해법의 여지가 없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이날 회담은 정면충돌 양상으로 흘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배정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또 "예전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했다"고 반격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긋자 문 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도의회 뒤에 숨지 마라. 해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말하고, 홍 지사는 "(문 대표가) 여기 오실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됐다"고 하는 등 분위기는 점점 서늘어졌다.

/정윤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청와대·문재인, 경제정책 대립각

청와대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3자회동의 연장선이다. 정치 사안 중심의 이전 쟁점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18일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 3자회동에서 문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와 '총체적 위기'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박하는 성격이다.

경제수석실은 문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증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이란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의미한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서민 증세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문 대표 역시 전날에 이어 비판을 이어가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3자회동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전·월세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이 없었다"며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진지한 대화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대표가 요청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겠다 했고 정례화도 동의했으니 지속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자주 만나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정부, 장관 후보 국민추천제 도입

국민이 직접 장·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무원·비공무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자기추천도 가능하다.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 직위의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확인 후, 피추천자 정보, 추천자 본인 정보, 추천 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사실 확인, 직무 적합성 판단 등 절차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재는 공직후보자로 선별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국가인재풀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정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승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숨은 인재를 발굴·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정부 인사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용아기자

사드 한반도 배치 가시화되나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외교가 아닌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이뤄어진 결정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실상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방송에 출연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있었던 사드관련 입장표명이 청와대 측과 조율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기관과 어떻게 조율하느냐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당연히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변인은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사드는 군사적인 문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대안 중 하나"라며 "군사적 차원에서 고민해야지 너무 정치외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발표 주체와 내용 모두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외교안보사령탑 차원의 결정이 이뤄어졌음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사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시절인 지난해 6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주한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사드를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시절 김 실장과 (국방위원장으로서) 사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김 실장도 사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윤아기자 [illegible]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발사 장면 /록히드마틴 제공

경찰대 임용생들과 파이팅 외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15년 경찰대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임용생들과 기념촬영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뿌리산업 외국인 인력 5년 넘게 일하면 영주권

금형·수소 용접 등 제조업 기초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에 종사할 외국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현재 3개에서 올 상반기 중 8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이공대, 계명문화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올해 외국인 23명이 입학해 내년 하반기부터 뿌리기업에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고용한 뿌리기업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숙련 기술인력을 기간 제한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은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이나 국적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산업부와 국립국제교육원, 조선이공대, 계명문화대, 조선대는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유학설명회를 17일 열었다. 국내에서 어학연수 중인 외국인 학생 200여명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 양성 대학별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양성대학별 학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했다.

Root industry training foreign labor force permanent residency given after 5 years of working period

Expanding community colleges to train foreign technical personnel who will be working in the root industry positioned in basic processing such as molding, casting and welding. Department of Industrial commerce and resource is planning on expanding from 3 community colleges to 8 colleges in order to educate foreign technical personnel.

The government has appointed 3 colleges (Choson National Science college, Gae Myung culture college and Choson college) as root industry foreign technical personnel training colleges. 23 foreigner will enter this year and will be employed in the root industry by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They can employ trained and ready technical personnel with experience any time of the year. Those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5 years are qualified to register for permanent residency nationality registration.

지난달 17일 서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뿌리산업 전문대학 입학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Along with this, Department of Industry, National Institute for National Education, Choson National Science college, Gae Myung culture college and Choson college hosted a briefing session on the 17th of this month at Seoul Jongno-gu National Institute for National Education. Around 200 foreign exchange students have participated who are currently studying in Korea. Each colleges presented their technical personnel employment support programs and bachelors program.

/파고다어학원 영어강사 Chris Kim 번역

금리 인상하면 美 증시 대 폭락?

헤지펀드 등 경고 쏟아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성급한 금리인상으로 '1937년 증시 대폭락'을 재현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준은 18일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인내심' 문구를 삭제하고 6월이나 9월쯤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BC는 1650억 달러(약 186조 원) 규모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사진) 회장이 증시대폭락을 경고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달리오 회장은 "현재 예상되는 연준의 정책 변화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금융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하길 꺼리고 있다"며 "연준이 통화 긴축을 신중히 진행해야 하며 잘못됐을 때 시행할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달리오 회장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이 1937년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1937년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정부의 4년에 걸친 공격적인 재정·통화정책 덕분에 미국 경제가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 회복기에 진입했던 시기다. 당시 연준이 예상보다 이른 긴축을 펼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날 인도 뭄바이에서 가진 연설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지점에 아마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관리되더라도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안정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부기자 kmt@

우크라이나판 효순이 전날 우크라이나 정부군 장갑차에 8세 소녀가 숨지고 30대 여성이 부상한 도네츠크주 콘스탄티노프카의 코모노소프 대로 옆에 17일(현지시간) 희생자 사진이 걸리고 추모 꽃다발이 놓여 있다. 사고 이후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정부군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기숙사 건물 주변에 몰려들어 건물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가 하면 경찰차를 뒤집는 등 시위를 벌였다. /AP 연합뉴스

'모바일 퍼스트'➡'모바일 온리'

페북 모바일 결제 진출·MS IE 퇴장

"나는 이 금융 서비스가 우리 비즈니스에 매우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머니 메이커(money maker)'가 수익을 얻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지난 1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투자자들에게 공언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페이스북은 17일(현지시간) 자사 메신저 서비스에 페이스북 이용자들끼리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탄탄한 SNS 플랫폼을 바탕으로 모바일 사업을 확장한 셈이다. 페이스북 메신저 송금 서비스는 몇 달 후 미국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미국 은행이 발행한 비자·마스터 직불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페이스북 메신저의 송금 기능을 이용해 친구에게 돈을 부치려면 친구와 메시지 대화를 시작한 후 '$'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송금 금액을 기입하면 된다. 이후 우측 상단에 있는 '송금' 버튼을 클릭, 본인 직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송금이 완료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며 한번 입력한 직불카드 번호를 재입력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친구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송금된 돈을 받으려면 메시지 대화 창을 연 후 메시지에 나온 '카드 추가' 버튼을 눌러 본인 직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페이스북이 17일 공개한 메신저 송금 서비스 예시 이미지 /페이스북

◆ 인터넷 익스플로러, 불명예 퇴장

페이스북이 모바일로 사업 상승세에 올라 선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잠재력상실하고 있다. 인터넷 브라우저 대명사로 군림한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하락하는 점유율과 모바일 도태 속에 결국 불명예 퇴장하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현지 IT 전문 매체들은 MS가 윈도 10에 탑재될 신규 브라우저 명칭에 IE를 빼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MS는 IE 대신 '프로젝트 스파르탄'이란 가칭을 붙여 디지털 시대에 더욱 경쟁력있는 브라우저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MS가 윈도 10으로 PC시대 전성기를 모바일 시대에서도 구현할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오늘은 녹색이 어울리네 아일랜드계의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을 맞아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 참가자가 클로버 모양의 독특 녹색 안경을 끼고 기념 행진을 바라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신한은행 조용병號 출범…리딩뱅크 굳히나

중도 성향으로 조직 신망 두터워…저금리에 NIM 하락 등 불안요소 산재

국내 리딩뱅크인 신한은행의 새 수장인 조용병(사진) 행장이 공식 취임했다. 조 행장은 중도 성향으로 최근 불거진 라응찬-신상훈 라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의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보이지 못한 점 등은 불안요소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신임 행장을 공식 선임했다. 이어 조 행장은 3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신한은행은 서진원 행장의 연임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서 행장이 건강악화로 연임이 무산되면서 지난 2010년 '신한사태'를 몰고 온 라응찬 전 지주회장과 신상훈 전 지주회장 라인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차기 행장 후보로 점쳐졌던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과 김형진 지주 부사장은 신한사태 당시 사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대표적인 '라응찬 라인'이다.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은 '신상훈 라인'으로 분류된다.

반면 조 행장은 어느 라인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행장 후보였다. 내부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용병호의 숙제도 산적해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은행의 수익 90%가량을 차지하는 대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예대마진(NIM, 순이자마진)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7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익도 전년 동기 대비 35.28% 감소한 1833억9000만원을 보였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57.4% 급감한 것.

조 행장이 수장이던 신한BNP파리바에서의 실적 부진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신한BNP파리바는 조 행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신한BNP파리바 2012년 회계기준(2012년 4월~2013년 3월) 영업이익 422억원, 당기순익 31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3년 회계기준(2013년 4월~12월)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은 297억원, 225억원에 불과했다. 결산기준 변경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실적이다. 지난해 영업익과 당기순익도 각각 369억원과 294억원에 불과하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조용병 신임 행장이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점, 해외 영업 전문가인 점은 앞으로 신한은행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수익성이 창출과 금감원의 고객계좌 불법조회 검사결과 등 난제도 상당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임종룡, 금감원과 스킨십 강화 "금융개혁 혼연일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의 스킨십 강화에 나섰다. 18일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 행사로 금감원을 찾아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진웅섭 금감원장이 액자를 들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사 '3진아웃제' 사라진다

임종룡, 현장 규제 첫 손질

올해 안으로 금융회사가 3번의 경고를 받으면 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던 이른바 '삼진 아웃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연내 감독·제재규정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현장에서 느꼈던 규제를 걷어내는 첫 손질이다.

'삼진 아웃제'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진출이나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됐던 것이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의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금융사는 3년간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제재를 기관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연내 권역별 법규를 고쳐 현행 5억원 상한인 과징금 수위를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앨 방침이다.

/백아란기자 alwa0903@

"휴면카드 해지시 연회비 부담 축소"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하반기부터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고객의 연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 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거래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VAN사)와 카드 단말기 등에 대한 규율이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휴면카드 이용 정지 기간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휴면카드 해지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이 축소되는 것이다. 그간 대부분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환급해 왔다.

다만 해지 절차가 휴면카드 전환 후 1개월내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를 묻고, 한달간 무응답 시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 뒤 해지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용정지 기간에도 3개월치 연회비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면카드 전환 후 2개월분만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단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여전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감독 업무가 금융위에 규정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을 담았다.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전표매입과 거래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가 밴사다. 현재 16개사가 활동중이다.

금융위는 우선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밴사를 고려해 자본금 요건을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밴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밴대리점은 밴사와 동일하게 불법 정보유출 금지,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카드사-가맹점 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에 설명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백아란기자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참가하세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통화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13회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4명이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휴학생 혹은 졸업유보생은 팀당 1인까지 참가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에서 오는 5월11~18일 참가신청서와 예심 평가 자료인 '기준금리수준 결정(6월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 예선은 오는 7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6개 지역 한국은행에서 열린다. 결선은 오는 8월 하순께 서울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다.

입상팀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과 장학금이 제공된다. 예선은 최우수(200만원)·우수(150만원)·장려(100만원)가 있다. 결선은 금상(1000만원)·은상(500만원)·동상(300만원)이다. 또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도 준다.

/김형석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IP금융' 꽃 피우나?

은행권, '지식재산 활용 상품' 확대

한 벽주전문점이 간판이 106억원의 가치를 인증받았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상표권을 통해서다.

가치를 인증받은 벽주전문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5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특허권과 상표권 등 독립적 권리가 인정되는 IP 역시 자산이 된 셈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지식과 브랜드, 아이디어 등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한 IP금융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우선하는 '창조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국책은행 중심으로 지원되던 IP금융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IBK IP우수기업 보증부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특허청 등록 특허나 출원 중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은행 영업점 추천을 받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IP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기업은행은 평가금액의 100%까지 중소기업 발행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KB금융그룹의 '지식재산 인큐베이팅 플랜'이 바로 그것.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식재산 인큐베이팅 플랜'은 IP펀드뿐 아니라 지식재산 관련 담보대출, 우수기업 코스닥 상장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부터 성장과 기업공개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KB인베스트먼트는 총 500억원 규모의 KB지식재산투자조합을 결성했다. KB국민은행은 특허청과 협약해 최대 연 2.04% 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KB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조성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는 외부 기술평가기관(TCB)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재원과 경험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지분형태로 자금을 지원한다.

특허청 또한 올해 투·융자와 연계된 IP금융을 지난해보다 1500억원 증가한 2000억원 규모, 400개 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브랜드 가치만을 믿고 자금을 지원했다 기업 파산 등 부실화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의류 브랜드 '런데즈컴바인'의 경우 지난 2013년 세일즈&라이선스 백 형태로 산은으로부터 10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의류시장 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최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에는 어쩔 수 없는 외생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가치평가 모델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달 초 'KDB IP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신은 관계자는 "이는 IP를 활용한 담보대출이나 펀드 운용 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담보요소와 로열티 등을 추산해 최종 IP가치를 산출한다"며 "기술과 IP금융 지원 체계를 더욱 탄력있게 구축해 IP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지원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외환은행 제공

외환은행 개인형퇴직연금 유치 본격화

외환은행은 지난 17일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치를 위해 가두홍보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IRP의 장점과 외환은행의 성과를 알리고 이를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가 기존 연간400만원에서 추가로 300만원이 늘어나면서 연간 최대700만원까지 가능하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에 대해서도 일반예금과는 별도로 금융기관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는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중 원리금보장형 IRP수익률에서 3.5%를 기록,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외환은행 퇴직연금부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달성했던 수익률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금융위, 메리츠종금증권·아이엠투자증권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간 합병을 인가했다.

메리츠종금증권(존속회사)이 아이엠투자증권(소멸회사)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한다.

합병 예정일은 오는 4월 31일이며 합병 후 대주주는 메리츠금융지주다. /박지원기자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역 다문화가정 지원

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이 부산에 거주하는 새터민과 다문화가정 돕기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부산YWCA 새터민 지원센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하고 지역사회 금융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층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가운데 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공사 직원들이 학습과 진로상담을 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새터민과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사랑의열매에 후원금 8억원 전달' 한국수출입은행은 17일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서 후원금 8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덕훈(왼쪽) 수은 행장이 김주현 사회의열매 사무총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기업은행, 외국인근로자 고국방문 왕복항공권 증정 이벤트

IBK기업은행은 외국인근로자 6명을 선정해 고국방문 왕복항공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거래기업이 외국인 모범사원을 오는 4월30일까지 기업은행 영업점에 추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5월 중순 발표된다.

기업은행은 이어 5월 말까지 3000 달러 이상 해외송금한 외국인 근로자 100명을 추첨, 프로야구 경기 단체관람과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형석기자 kjs640@

한국인의 true friend
깊이가 다른 금융은
마음의 준비부터 다릅니다
먹을 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생각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증시로 머니 무브… 증권주 사야할 때”

전문가들 “금리 인하로 증권사 실적 개선 본격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솔솔 불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과 채권 관련 이익이 1분기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순수익의 31.2%를 차지하는 수탁수수료가 증가하고, 매각 대상이었던 증권사의 영업력이 회복되면서 커버리지(증권사가 보고서를 내는 대상 기업) 증권사의 올해 순이익은 27.9%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분기 수탁수수료 수익은 전분기 대비 16.2% 증가한 404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한 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는 "국내 전체 증권사의 자산 중 유가증권 비중은 59.4%로 가장 많고,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 비중이 82.7%를 차지해 금리 변화에 민감한 자산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1분기 채권 관련 이익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대우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꼽았다.

그는 "한국금융지주는 수수료 수익의 총 수익 대비 비중이 높다"면서 "자산운용, 밸류운용, 저축은행 등 수익 기여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자입금 상환을 통해 100억원대 규모의 조달 비용 감소도 예상돼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도 "저금리 덕분에 증시로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대이동)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주를 사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저금리로 기업금융 시장이 개화하고, 리테일 자금은 중위험 자산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난 2007년까지 강세장에서는 예금에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이동했으나, 지금은 주가연계증권(ELS)을 경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1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증권주의 주가는 아직 부담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증권 유니버스(투자대상 종목군) 주가수익비율(PER)은 11배로, 시장 전체 PER이 20배 이상인 것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종목별로 'NH투자증권'이 기업금융 최강자라며 최선호주로 꼽았고, '대우증권'을 차선호주로 제시했다.

/김민지기자 ram@metroseoul.co.kr

대형주, 코스피 강세에 속속 신고가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보다 0.40% 오른 150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전날보다 0.60% 상승한 150만6000원까지 오르며 전날에 이어 다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이날 삼성전기도 장중에 전날보다 1.39% 상승한 8만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19위인 LG생활건강도 장중 전날보다 0.79% 오른 76만400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GS리테일은 장중에 전날보다 2.57% 오른 3만1950원까지 올랐고 코웨이도 전날대비 2.49% 오른 9만400원까지 상승해 두 종목 모두 연중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46포인트(0.07%) 내린 2028.45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169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4거래일 연속 '사자'를 나타냈다. 전날 외국인은 4989억원 어치를 순매수해 연중 최대 순매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 대규모 외국인 매수세 유입은 유럽발 유동성 확장 효과가 본격화하는 신호"라며 "외국인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대형 경기민감주의 상승이 돋보였다"고 진단했다.

/이현진기자

KDB대우증권 '원유 투자 아카데미' 개최 KDB대우증권이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원유 투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반등 또는 추가 하락의 변곡점에 있는 원유가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려해 마련됐다. 원유시장의 구조 점류·전망과 투자 방법을 소개한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kdbdw.com)나 1588-3322로 하면 된다. /KDB대우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 '주식투자 설명회' 개최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 308호에서 광주지역 투자자를 위한 주식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연중 진행하는 전국순회 투자설명회로 '한국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증시전망과 Hot한 종목 찾기'란 주제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이 시황 및 유망종목에 대해 강의하고, 2부에서는 강성주 온스탁(ON stock) 증권방송 전문가가 '주식투자 매매기법'을 주제로 본인만의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박원욱 WM전략본부장은 "이번 광주지역 투자설명회는 최근 달러화 강세로 부각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온스탁 전문가의 매매 노하우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설명회는 주식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또는 고객센터(1544-5000/1588-0012)에서 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금투업계 27%, 사외이사 과반 이상 정·관계 출신

금융투자업계 4개 회사 중 한 곳 이상이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을 권력기관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로 채워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또는 사외이사 선임 공시를 내놓은 금융투자업계 30개사 중 사외이사(내정자 포함)의 절반 이상을 정·관계 인사가 차지한 곳은 8개사(26.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국증권은 사외이사 3명 전원을 경제 관련 부처와 법원 출신 인사로 채웠다.

박원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세청 국장 출신의 진병건 법무법인 JP 고문변호사가 새로 영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종욱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연임됐다.

삼성자산운용은 사외이사 4명 중 3명을 고위 관료 출신으로 충원했다.

손인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출신의 윤영선 전 관세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안영욱 전 법무연수원 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진학 전 국세청 기획관리관, 이흥제 전 서울중앙지검 의사부장 등 관료 출신 2명이 사외이사 3명 중에 포함됐다. 한화자산운용도 사외이사 3명 중 2명이 관료 출신이다. 이계로 전 대통령 법무비서관, 이두로 전 재정경제부장관 특별보좌관 등이 그들이다.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SK증권 역시 각각 사외이사 4명 중 2명을 관료 출신이나 정치권 관련 인사들에 내줬다. 삼성증권은 기존 사외이사인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더해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승우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영입했다.

전반적으로 전체 30개사 사외이사 132명 중 정·관계 출신 인사가 35명(26.5%)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금융위·금감원·기재부·국세청 등 금융업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 출신이 16명으로 주류를 이뤘다.

/김보지기자

예탁결제원, 육군부사관학교와 업무협약

한국예탁결제원이 18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와 금융투자교육 지원과 교류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전북지역협의회와 함께 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금융교육을 할 예정이다. 육군부사관학교는 병영체험과 안보교육 등을 지원해 민·군 협력과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현진기자

LG 전기차 사업 진출 '부르릉'

독자적 스마트 운영체제 개발 관건 쉐보레와 LG화학 볼트 전기차 배터리 개발

LG그룹이 스마트 전기차 사업 진출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LG는 최근 그룹차원에서 스마트카 사업진출과 관련,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 사업진출 일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LG가 전기차 사업자를 타당성 평가에서 수익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들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완성된 전기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관련 평가에선 각 계열사로 흩어져 있는 개발과 제조 역량을 한데 묶어 조율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기차 배터리 사업 관련 안정적 수요가 확보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고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사업수익성이 있겠느냐가 중요한 사실이고 LG는 삼성 못지 않은 완성차(스마트카)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LG는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스마트카 생산라인을 이미 갖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예로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는 최근 LG화학과 공동 개발한 18.4kWh 용량의 배터리 셀을 전기차 볼트에 장착해 에너지 축적 능력을 배가했다. 기존 배터리 셀(288개)을 192개로 획기적으로 줄여 차량 중량을 9.8kg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 하는 한편, 배터리 팩을 차량 하부에 장착해 최적의 무게중심을 구현했다.

LG화학은 스마트카 배터리 셀과 모듈을 만들면 LG전자는 배터리팩으로 완성을 한다. 특히 LG전자 내 VC(Vehicle Components) 사업본부는 자동차 엔지니어링, 운전자원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카 계기판 등 패널은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하고 LG이노텍은 모터나 센서 등을 만든다. LG CNS는 스마트카 충전 솔루션을 생산하고 LG하우시스는 차량의 각종 내외장재와 원단을 공급하는 등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카를 완성한다.

문제는 스마트카 시장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스마트 운영체제(OS)를 만들고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느냐다. 업계는 삼성이 타이젠을 통해 OS는 선점했지만 차량 조립공정 등을 운영체제와 맞물려 수직일관화하고 생산공정을 갖춰 시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전통적 자동차 사업과는 달리 스마트카는 자체조립보다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OS에 담길 인포테인먼트(차안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나 텔레매틱스(차안에서 위치추적, 인터넷 접속, 원격 차량진단, 사고감지 등 이용) 같은 기술력이 시장을 지배할 우기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서로 근소한 기술력의 차이가 있지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OS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스마트카 사업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LG 관계자는 스마트카 사업 진출과 관련해 "잘 알지 못한다"며 "그룹내 별도의 사업추진단이나 본부 등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송병형 기자 sh@metroseoul.co.kr

SK, 협력사와 함께 질적 성장 도모

동반성장 CEO 세미나 개강

SK그룹이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핵심 교육을 통해 질적성장을 도모하고 나섰다.

SK는 18일 오전 서울 광장동 SK아카데미 연수원에서 협력회사 CEO 91명을 초청해 '2015 SK동반성장 CEO 세미나' 개강식을 가졌다.

'SK 동반성장 CEO 세미나'는 SK가 협력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매년 총 10회에 걸쳐 경영전략·재무·마케팅·리더십 등 기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핵심 과정들을 교육해 주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SK이노베이션 협력회사인 (주)삼구아이앤씨 동일범 대표이사와 SK텔레콤 협력회사인 (주)다솜에스앤씨 김윤원 대표이사, SK하이닉스 협력회사인 코리아써키트 이광원 대표이사 등 91개 협력회사 대표도 참석해 SK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장근 의장은 축사에서 "2005년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협력회사 대표 93명이 모여 '행복동반자경영 선언'을 했다"며 "이후 10년 동안 협력회사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훌륭한 성과를 거뒀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SK그룹 매출은 2003년 50조원에서 2014년 153조원으로 늘어났고 2009년 1200억원이던 동반성장펀드는 3.5배 증가한 4200억원이 됐다"며 SK그룹 동반성장 투자의 발전아 궤를 같이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2014 대한민국 agenda), 서은국 연세대 교수(행복의 기원), 김상근 연세대 교수(인문학의 세가지 질문), 임춘택 KAIST교수(미래변화 7대 요소와 대한민국 新 산업전략), 예린조 파슨스 디자인 스쿨 교수(디자인 경영전략: 경계를 넘는 사고의 힘) 등이 강사로 나섰고, 참가자들 반응은 뜨거웠다.

이만우 SK PR팀장(부사장)은 "SK는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에 늘 최선을 다해왔다"며 "협력회사와 SK의 발전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18일 서울 광장동 SK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열린 '2015 SK 동반성장 CEO 세미나' 개강식에서 김장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앞 맞줄 오른쪽 5번째), 이문석 SK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오른쪽 6번째)과 협력회사 CEO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SK 제공

LG전자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서 압도적 화질

LG전자가 고화질 디스플레이와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더한 시스템 에어컨 등으로 조달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했다. 참가 업계 중 최대인 325㎡ 규모의 부스에 TV존, 학교솔루션존, 커머셜사이니지존, 시스템에어컨존을 마련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공공시장에 최적화한 솔루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전시부스를 꾸몄다"며 "상담 직원 수도 30% 넘게 늘렸다"고 말했다. 부스 입구에는 77·65인치 울트라 올레드 TV를 배치했다. TV 존에는 슈퍼 울트라HD TV, 울트라HD TV, 스마트 TV 등 다양한 고화질 TV를 전시해 구매 담당자들이 제품의 특장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커머셜사이니지존에는 지자체나 대학·박물관 등에 적합한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전시했다. 최대 밝기 2500니트(nit)로 TV보다 6~7배 밝은 고휘도 사이니지, 47인치 사이니지 4대를 결합한 비디오아트월도 소개했다.

시스템에어컨존에는 고효율, 스마트 기능 등 세계 최고의 공조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들을 배치했다. 외부에서 작동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확인하도록 IoT 기능을 탑재한 멀티브이 슈퍼4를 내세웠다.

이 외에도 동급 최경량 노트북 그램 시리즈, 84인치 전자칠판, 미니빔 TV, 듀얼 모니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오피스 솔루션, CCTV와 관제센터 솔루션도 전시했다.

이상은 LG전자 한국영업본부 B2B그룹장 전무는 "공공기관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갑 기자

최태원 회장 사재 조성 KAIST청년창투 본격 투자 집행

KAIST 사회적 기업 수혈 결실

지난해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주)(이하 KAIST 청년창투)가 최근 전도유망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5명을 첫 투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SK의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KAIST 청년창투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모델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시드머니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설립 자본금 100억원은 전액 최태원 회장의 사재에서 출연됐다.

첫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사회적 기업은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연금술사(대표 박진숙)', 신진작가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에이컴퍼니(대표 정지연)', 원예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리아프(대표 남슬기)',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을 사업모델로 한 '터치포굿(대표 박미현)'과 '자락당(대표 김성경)' 등 5개 기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대상 기업 중 연금술사를 제외한 에이컴퍼니, 리아프, 터치포굿, 자락당 등 4개 기업의 대표들은 모두 SK그룹이 지난 2012년 혁신적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해 KAIST와 세계 최초로 개설한 사회적기업가 MBA 1기 졸업생들이다.

SK그룹은 이번 투자가 창업초기 사업확장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소모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청년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조성한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기금 의 첫 투자"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5개 기업 모두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선순환적 구조로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갈길 바쁜 SKT 장동현호 연이은 암초 '진땀'

취임 이후 가입자수 줄고 허위·과장광고로 피소

장동현(사진) SK텔레콤 사장이 취임 첫해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취임 3개월도 안돼 가입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데다 허위·과장광고로 경쟁사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장 사장은 공식적으로 SK텔레콤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자마자 과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제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다. SK텔레콤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게 들어가면서 장 사장의 조변 행보부터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다.

1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월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순감은 3만8394명으로 알뜰폰(MVNO)을 포함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고객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KT는 2만6713명이 줄었고 LG유플러스는 1만8779명 증가했다.

SK텔레콤은 1월에도 고객 2만9387명이 감소했다. 장 사장이 SK텔레콤의 사령탑을 맡은 이후 기존 가입자를 다른 통신사에 빼앗기는 규모가 점점 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 논란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KT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SK텔레콤은 현재 3밴드 LTE-A 관련 TV 지면 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더 큰 악재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방통위의 제재 여부다. 만일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다음달 11일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주요 단말기를 대상으로 과다한 리베이트를 살포해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고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한 단독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이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장 사장을 사내이사로 공식 선임할 예정인 상황에서 장 사장은 정식으로 SK텔레콤 수장자리에 오른 직후 방통위 제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1~2월 지원금 축소로 마케팅 비용을 아끼운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지원금을 일거에 살포해 가입자 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 입장에선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들과의 마케팅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SK텔레콤, '5G시대 청년 창업스타' 찾는다

SK텔레콤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용산에 위치한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 모바일 테스트베드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창업플러스센터'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수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자립 성장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청년창업플러스센터' 내 전용 공간을 활용해 시험용 단말기 등 ICT 장비를 갖춘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모바일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SK텔레콤은 새로 조성한 '모바일 테스트베드'에 최신 단말기 30대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향후 5G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물인터넷(IoT) 단말기, 드론, 로봇 등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 창업가들의 연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18일 용산 청년창업 플러스센터 [illegible] 최진성 종합기술원장(사진 왼쪽)과 서울산업진흥원 이진영 대표가 참석해 혁신 모바일 기기를 소개했다. /SK텔레콤 제공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5G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ICT 기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SK텔레콤이 보유한 ICT 역량을 공유할 것"이라며 "T오픈랩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영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는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ICT 융합 사업을 준비하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출신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더 많은 혁신적인 청년 창업 기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KT, 국내 중소·벤처와 '재난안전ICT 공동연구' 맞손

KT가 재난안전분야 정보통신기술(ICT)-솔루션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손을 잡았다.

KT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일산종합시험센터에 중소·벤처기업과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재난안전 협력 테스트랩'을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약 100m 공간에 이동통신 중계기,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등 네트워크 장비는 물론 음성 영상 LTE 무전기(IP-PTT), D2D(단말간 직접 통신) 등 PS-LTE 분야 핵심 단말기 20여대 등을 비치했다.

중소·벤처기업은 이곳에서 자사가 개발한 네트워크 장비를 KT의 유무선 통신망에 직접 연결해 연동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며 랩에서 제공하는 PS-LTE 단말기를 이용해 재난안전분야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재난안전 협력 테스트랩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재난종합관제 플랫폼을 제공한다. GIS(지리정보시스템),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사별 솔루션을 KT 재난종합관제 플랫폼 위에 올리면 상호 연동이 가능해지고 비상상황 실시간 감시부터 상황 전파·공유, 구호현장 지휘까지 재난대응 전 과정 속에서 개별 솔루션마다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LG유플러스, 똑똑하고 안전한 '스마트 어린이집' 만든다

LG유플러스는 은행온정보시스템과 함께 보육업무 효율화와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 안전한 어린이집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어린이집 차량 위치와 운행 현황, 사고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U+Biz LTE블랙박스 키즈안심이' 서비스를 어린이집에 제공한다.

차량 사고 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SMS로 알림과 함께 클라우드에 사고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 돼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지도 상에서 차량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는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위치 확인과 푸쉬(Push)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지내를 맞이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용 CCTV를 구축형으로 설치해 영상을 원하는 기간에 저장하고 필요할 경우 PC와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영상 제공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 'tvG 키즈 스마트 솔루션'으로 보육교사들은 보다 쉽고 편하게 동영상 등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원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도 손쉽게 tvG에 올려 원아들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원생활동 내용 공유를 위한 멀티미디어 앨범, 활동사진 공유기능 도 제공된다. 여름 들어 원내 교과활동이나 생일자 파티 등 행사 시 찍은 사진을 슬라이딩 기능을 통해 TV 화면을 통해 함께 볼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가 그간 서류철로 보관하던 영수증 등을 디지털화해 보관할 수 있는 보육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유아 보육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은행온정보시스템의 결합에 통한 문서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결재가 가능하다. 또 각종 문서를 스캔이나 사진 촬영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영기자

현정은 현대 회장, 상공의날 금탑산업훈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이 상공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상공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공의 날' 기념식에선 총 186명이 훈장과 장관표창 등을 받았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현 회장과 조성제 비에이치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현 회장은 여성기업인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그룹을 정상화한 공로가 인정됐다. 현대엘리베이터 해외진출, 현대그룹 매출 확대 등의 성과도 있었다. 조 대표는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가로 선박내장재 국산화 성공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탑), 최양하 한샘 회장(은탑), 임영득 현대자동차 부사장(동탑), 박수[illegible] 수산업 대표(동탑), 신동우 나노 대표이사(철탑), 임재영 한국바스프 사장(철탑),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대표이사(석탑), 임영희 유한킴벌리 부사장(석탑) 등이 훈장을 받았다. /송[illegible]기자 [illegible]

정준양 핵심인재 권오준 정권서도 그대로?

김진일 사장, 윤동준 부사장, 이영훈 부사장, 오인환 부사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정준양 사절에 포스코건설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핵심 인사들까지 고스란히 끌어안았다.

권 회장은 13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임원 22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다수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당시 포스코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이다. 포스코건설 100억원대 비자금으로 시작된 검찰수사가 포스코 그룹을 흔드는 가운데 정 전 회장 시절 포스코를 이끌던 이들의 책임론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취임 2년차를 맞은 권 회장은 비롯해 김진일 사장, 윤동준 부사장, 이영훈 부사장, 오인환 부사장까지 5인으로 사내이사진을 꾸렸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윤동준 경영인프라본부장(부사장)은 2010년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을 지냈다. 포스코건설 베트남 법인에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이 형성되던 시기다. 은 부사장은 2013년 정 전 회장이 퇴임할 시기 포스코 경영전략 2실 실장직을 맡았다.

재선임된 이영훈 부사장은 포스코건설 재무담당임원, 포스코 전략기획실장을 거친 인물이다. 이 부사장 역시 2014년 3월까지 포스코건설 부사장으로 역임한 바 있다.

김진일 사장은 1975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항제철소장과 탄소강사업부문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 포스코켐텍 사장을 맡아왔으며 2014년 권 회장과 함께 포스코 회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오인환 부사장은 33년간 마케팅 업무를 해온 포스코맨이다. 철강사업전략실장(전무)직에서 이번에 승진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 현직 경영진 2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가운데 검찰 수사의 영향이 이들 4인방에까지 미친다면 권오준 2년차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와 계열사 주가는 하락세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한 13일 26만5500원으로 장을 마감한 포스코 주가는 18일 종가 기준 25만8000원으로 하락했다. 계열사인 포스코켐텍도 13일 종가 14만3300원에서 13만9100원으로, 포스코ICT는 6070원에서 5610원, 포스코플랜텍은 3835원에서 3510원으로 이날 일제히 내리막을 지고 있다.

/김소연기자 10sound@metroseoul.co.kr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건설의 횡령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며 비자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연 회장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의 가족 될 것"

한화그룹은 18일 (주)한화 대전사업장에서 그룹에 입사한 13명과 입사예정인 1명의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을 초대해 격려했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천안함 용사 46명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열었다.

참석한 14명의 유가족은 천안함 사건 당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그룹에 입사를 희망한 38가족 중 (주)한화, 한화갤러리아, 한화생명 등에 근무하는 13명과 1명의 7월 입사 예정자다.

심경섭 한화 대표이사는 김 회장이 천안함 유가족 직원에게 보낸 격려편지를 대독했다.

김 회장은 서신을 통해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들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화그룹에는 (주)한화에 11명, 한화갤러리아 1명, 한화생명 1명 등 총 13명의 천안함 유가족이 근무하고 있다.

7월에는 한화갤러리아에 1명이 입사할 예정이다.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24명도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연령, 경력,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자리에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범종기자

기아차, 서비스협력사 변화실천 다짐 기아자동차는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서비스협력사 변화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사진 첫 줄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두산중공업 상생발전, 2차 협력사까지 '성과공유제'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은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동반성장 콘퍼런스 2015를 열고 성과공유제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성과공유제 대상은 기존의 1차 협력사 193개 협력사에 더해 2차 협력사 50여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2년 도입한 성과공유제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협력사와 지난해까지 총 70건의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 측은 협력사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공동 과제로 추진하고 그 결실을 나누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두산중공업 협력사인 금광테크(주)는 성과공유 협약에 힘입어 지난해 일체형 원자로헤드 가공 시간을 단축하며 원가를 약 30% 절감하는 한편, 3년간의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했다. 티타늄 튜브 제작 전문회사인 신한금속(주)과 (주)이스트밸리티아아는 원자재 활용률을 높여 두산중공업으로부터 2억 원가량을 성과 공유 지원에서 돌려받았다.

두산중공업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1608억 원 동반성장 펀드를 토대로 2·3차 협력사 확대 지원,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경쟁력강화 지원 등 2·3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동반성장위원회-두산중공업-협력사 3자 협약'을 체결했다. /김소희기자

대한항공, 평창동계올림픽 최고등급 공식후원

대한항공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 나선다.

대한항공은 18일 강릉 소재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협약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한진그룹 회장)과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 곽영진 평창조직위원회 기획행정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구닐라 린드버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대한항공의 이번 후원 협약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국내 후원사들의 참여를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대한항공을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 곽영진 평창조직위원회 기획행정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18일 강릉 소재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대한항공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후원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국내후원사 중 최고등급인 공식파트너(Tier1)로서 현금과 항공권 등 현물을 후원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후원을 통해 지식 재산권 사용 권리, 독점적 제품공급 권리, 프로모션 활동 권리, 스폰서 로고 노출 권리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제공받는다.

대한항공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 국위선양과 국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남자 프로배구단, 여자 실업탁구단,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실업팀을 운영하며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필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기업>

검찰 수사 동아원, 페라리 판매 계열사 매각

외식사업 부문 등 자회사·자산 매각도 검토 · "재무구조 개선 차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아원(회장 이희상·사진)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동아원이 자회사의 자금지원과 실적부진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계열사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아원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수입차 브랜드 '페라리'와 '마세라티'로 유명한 자회사 FMK의 지분 100%(140만주)를 약 2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효성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키로 결정했다.

인천 공장, 당진 탱크터미널 등 1000억원대의 자산 매각 및 지난 2013년 신라호텔에서 인수한 고급 퓨전 레스토랑 '탑클라우드'를 포함한 외식사업부문 매각도 계획 중이다.

동아원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과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로 인해 자산과 계열사 매각을 진행 중이며 이번 매각을 통해 재무적인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재벌 계열사 전문업계 동아원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3남 전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회장(7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돈기업이다.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처로 압수수색을 받은데다 최근 주가조작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동아원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1년여간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도록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원이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고 지분 17%(1066만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이 회장은 동아원 지분 8.23%와 한국제분 지분 31.09%를 보유하고 있다.

동아원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여파로 사료 거래처 부실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 관계사 대여금 충당금 설정 등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업손실은 175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순손실은 776억원으로 전년대비 469% 급감했다.

/김유진기자 eriis0729@metroseoul.co.kr

"봄 꽃게가 돌아왔다" 현대백화점 사원들이 19일부터 26일간 점포에서 활(活)꽃게 산지 직송전을 진행한다. 이 시기에 나오는 봄꽃게는 살이 차서 일반 꽃게보다 고소하고 살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30% 할인된 100g 4000원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공법 마케팅'으로 소비자 공략

식음료업계, 콩알메주공법·장기숙성공법 등 사용

최근 식음료업계가 차별화된 제조공법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15년 만에 새로운 콩 된장제품인 '백일된장'을 선보였다. 백일된장은 전통 숙성 방식에서 착안한 '온도리듬 숙성 공법'을 적용하고 콩알 하나하나에 잡종 사균 메주를 만드는 '콩알메주 공법'도 자체 개발했다. 업계 최초로 이중 라벨을 제품 패키지에 적용, 라벨스티커 안쪽에 제조 공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우육탕면'을 출시한 농심은 개발기간만 1년 이상이 걸렸다. 면 내부까지 열 전달 효율을 높인 'HPTET공법'의 우육탕면발은 일반라면 대비 2배 굵고 '너구리'보다 1.5배 두꺼다. 면 표면은 매끄럽고 속은 쫄지며 면의 강도가 높아 쫄깃한 식감이 오랜 시간 유지된다. 농심은 면발의 특징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 패키지에 '3mm면', '탱탱한 면발'이란 문구를 넣었으며 출시 한달 만에 500만개가 팔렸다.

동원F&B의 '동원연어 오리지널'은 '코어' 연어를 신선하게 담아내기 위해 'FP 공법'을 사용했다. FP공법은 연어 살코기 덩어리를 그대로 통조림에 담은 후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 한 번에 살아내는 공법이다. 동원은 FP공법에 대한 정보를 제품 패키지에 인쇄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김혜자 씨를 모델로 한 TV 광고를 통해 낙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 프리미어 OB를 출시한 오비맥주는 장기숙성공법을 적용해 잡미없이 투명하고 깔끔한 끝 맛을 낸다. 장기숙성공법(LTAT)은 맥주 제조 과정 중 발효한 맥주를 일반 맥주보다 오랫동안 저온으로 숙성하는 제조 방법이다. /김효선기자

디아지오코리아, 저도주 시장 출사표

35도 '윈저 더블유 아이스' 출시 – 영하 8도 냉각 여과

주류기업 디아지오 코리아(대표 조길수)가 저도주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18일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35도 신제품 '윈저 더블유 아이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윈저 더블유 아이스는 영국 왕실 연중 증류소인 '로열 라크나가' 증류소의 스카치위스키 원액이 99.35% 포함된 알코올도수 35도의 저도 위스키다.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윈저 W ICE' 런칭 행사에서 디아지오코리아 조길수 대표(가운데)와 모델들이 35도 신제품 '윈저 W ICE'를 선보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 제공

국내 소비자의 변화하는 주류 트렌드에 기반해 탄생한 제품이다. 저도 주시장에 소비자가 믿고 즐길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2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부드러운 목넘김을 위해 영하 8도의 냉각 여과 공법을 적용했고, 한국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해 솔잎과 대추 추출물, 말린 무화과 향을 넣었다.

출고가격은 450㎖ 기준 2만453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는 "국내 소비자의 주류 소비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품질에 대한 전통은 유지하면서 제품 혁신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다"며 "점차 확대되는 저도주 시장에서 맛과 품질 등을 간직한 소비자의 새로운 선택의 기준이 될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디아지오는 스카치위스키의 정통성과 윈저 브랜드의 인지도 등을 앞세워 최근 침체된 위스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는 "로열 라크나가 증류소에서 엄선된 원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스키 맛을 내는 베이스가 (타 제품과) 다르다"며 "부드러운 맛을 살려주는 냉동여과 공법과 균형잡힌 제조법(formula), 스카치위스키의 역사를 녹인 블렌딩 기술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골든블루가 이끌어온 저도 위스키 시장에 롯데주류(주피터 마일드 블루)와 다국적 기업인 디아지오 코리아까지 뛰어들면서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출고된 위스키는 약 178만7400상자로 2013년 185만700상자 보다 3.4% 줄었다. 2009년 시작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윈저, 임페리얼 등 시장점유율 1~2위 제품이 고전했고 국내 저도 위스키 시장을 개척한 골든블루만 지난해 출고량이 57% 이상 급증하며 '나홀로 성장'을 지속했다. /김효선기자

11번가, 트랜스포머 가구 기획전

11번가는 자유롭게 형태를 바꿔 공간 효율성을 높인 트랜스포머 가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MD 추천 트랜스포머 가구 기획전'을 오는 22일까지 큐레이션 쇼핑 '쇼킹딜십일시'에서 연다고 18일 밝혔다.

상판을 펼치면 최대 6인까지 사용 가능한 에보니아 어썸다 트윈 접이식 식탁은 9만7900원, 책상과 침대를 하나로 합친 북카페 책상침대는 27만9000원, 가벼워서 소파 또는 침대로 쉽게 변신하는 언조 가죽 윈디 소파 베드를 40% 할인된 5만9900원에 판매한다.

쇼킹딜십일시 모바일 앱에서 구입할 경우 T멤버십 11% 추가 할인(최대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능성있는 너, 나의 열정,
Tadi가 너의 미래를 만든다
2015.4.6 개강
Tadi
Total Fashion
And
Design
Institute
KOREA

새 대표 맞은 토니모리, 공격 모드

상반기 상장 통해 해외 투자···中 법인 설립

최근 2년간 대표가 네 번이나 교체됐던 토니모리가 배해동 대표이사(57·사진) 체제로 바뀐 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는 한편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배 신임 대표는 지난 2월 28일자로 취임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토니모리의 모기업이자 화장품 용기 전문 제조자 태성산업도 경영하고 있다.

배 대표는 상장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등 내부 혼란 수습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판매관리비를 줄이면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 왔다. 마케팅 비용을 써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타사와 다른 행보를 보여 일각에서는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3월 내에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기업공개(IPO)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과 관련해서는 본사 내에 별도 구성된 TF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상장 주관사는 KDB대우증권이다. 시가총액은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해외 진출에 쏟아 붓는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에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현지 유통사와의 MOU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도 1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2018년까지 GCC(걸프협력회의) 지역 내에 50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미국 세포라에 입점된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신규 국가 진출은 물론 말레이시아·러시아 등에서도 매장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올해는 해외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니모리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4명의 대표가 사임, 상장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3년 여간 토니모리를 이끈 김중천 사장 후임으로 온 정의훈 사장이 8개월 만에 사임한 데 이어 아모레퍼시픽 출신의 오세한 사장과 호종환 사장도 각각 취임 이후 7개월, 1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홈플러스, 예비부부 위한 '혼수 가전 대전'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혼수 가전 대전'을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혼부부 구매율이 높은 곡면 TV와 제습 디자인 냉장고, 300L 대용량 냉장고, 17kg 세탁기 등을 선보였다. /홈플러스 제공

"국경없는 패션 모델"

SPA·해외 직구 통해 패션 시장 글로벌화

패션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톱스타를 광고모델로 잇따라 기용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 봄 형지가 론칭한 골프웨어 '까스텔바작'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브랜드를 창업한 디자이너인 '장 샤를 드 까스텔바작'이 직접 브랜드 론칭 광고에 모델로 출연했다.

형지는 해당 광고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검색포털, 전국 골프존 5000개 매장의 총 2만 5000여 개 스크린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화범 까스텔바작 마케팅본부장은 "까스텔바작은 현존하는 명품 디자이너 중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매 시즌 파리컬렉션에서 상상력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다"며 "아트 골프라는 브랜드 콘셉트와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모델 기용 배경에 대해 밝혔다.

여성복 브랜드 '캐리스노트'는 일본 모델 '야노 시호(사진)'를 모델로 기용했다.

캐리스노트 측은 "우아한 매력을 지닌 야노 시호가 모던하고 시크한 브랜드 컨셉과 잘 맞을 뿐만 아니라 톱모델이자 현명한 아내, 자상한 엄마로 이 시대 여성상을 대변한다"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야노 시호는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추사랑의 엄마로 출연하면서 어설스러운 캐릭터와 모델 출신다운 뛰어난 미모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여성복 외에도 가방·란제리 등의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돼 활약 중이다.

이태리 브랜드 '스테파넬'은 이번 시즌 톱모델 '밀라라 로다'와 시즌 캠페인을 전개한다. 화장품 '에스티로더'의 모델로 유명한 밀라라 로다는 진한 눈썹과 뚜렷한 이목구비로 고혹적이며 시크한 매력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다.

이번 시즌 '스테파넬'은 모던하고 현대적인 감성을 더 빠기 위해 뉴욕 현지에서 화보촬영을 했다.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베니코폰과 뉴욕의 자연을 바탕으로 모던하고 소프트한 분위기에 현대적인 여성상을 표현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SPA의 국내 진출과 해외 직구를 통한 패션 소비가 늘어나면서 패션 시장이 본격적인 글로벌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모델에도 국경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내 스타일 '담금주' 시장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

직접 과실주를 담가 먹을 수 있는 담금주 매출이 늘고 있다.

18일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최근 4년간 참이슬 담금주(사진)의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82.9% 늘었다.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맥주와 소주, 위스키 등 국내 주류 시장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담금주 판매는 2011년 63만4000상자(1상자=360ml짜리 30병 환산)에서 2012년 71만8000상자, 2013년 89만3000상자, 2014년 116만상자로 늘었다.

전년대비 판매량 증가율도 2012년 13.3%에서 2013년 24.4%, 2014년 29.8%로 성장세다. 하이트진로는 1.8ℓ, 3.6ℓ, 5ℓ 등 세 종류의 담금주를 판매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4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술값 지출액이 1만1267원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술을 사서 집에서 소비하는 금액만 집계한 것으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술에 대한 취향이 다양해지고 점점 술 자체의 맛을 즐기는 음주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담금주 판매도 느는 추세"라며 "경기 불황과 음주문화 변화로 인해 가정용 술시장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선기자 mike1772@

아모레퍼시픽 친환경 전시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친환경 사회공헌 '그린사이클'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 꽃으로 피다'의 상설 전시전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린사이클' 캠페인은 화장품 공병 등을 통한 다양한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을 포괄하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전시 참여는 서울시의 연중 도시 녹화 캠페인 '서울, 꽃으로 피다'에 동참해 시민 참여와 협력을 증대시켜 자발적 녹색문화를 확신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GNC, 유청 단백질 보충제

동원F&B(대표 박성칠)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GNC가 유청 단백질 보충제 'GNC 웨이 프로틴(Whey Protein)' 6종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GNC 웨이 프로틴'은 1회 섭취량당 24g의 유청 단백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축 유청 단백질(WPC)과 분리 유청 단백질(WPI)을 배합해 흡수율을 높였으며 필수 아미노산 9종을 함께 담았다.

'GNC 웨이 프로틴'은 초코, 딸기, 바닐라, 바나나, 쿠키앤크림 등 6가지 맛으로 기호에 따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다. 소용량의 파우치 포장으로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다.

로가디스 모델 전현무 발탁

제일모직은 남성복 브랜드 로가디스의 전속 모델로 방송인 전현무를 발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일모직 남성복사업부장 최훈 상무는 "로가디스의 대표 모델인 배우 현빈과 달리 전현무의 재치가 넘치면서도 친근한 이미지가 스마트 슈트를 주로 착용하는 직장 남성들에게 공감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해 현빈과 함께 이번 봄 스마트 슈트 광고 모델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일모직은 로가디스 홈페이지와 유투브에 전현무가 등장해 '프로핏 슈트'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가혈당 측정 당뇨환자 8%

자가혈당관리 인식 대체로 낮아 … 정기적인 확인 필요

자가혈당 측정기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당뇨병 환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엘 헬스케어는 지난 1월 수도권지역 내과 병원 4곳에서 당뇨병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가혈당 측정 실태와 당뇨병관리에 대한 실천 정도'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6% 이상이 당뇨병을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합병증(58.7%)과 평생 관리의 필요성(31.5%), 완치의 어려움(9.9%) 등이 꼽혔다. 또 이들은 ▲식이조절(27.2%) ▲운동(25.3%) ▲약 복용(21.1%) ▲정기적인 병원 방문(16.2%) 등을 통해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뇨병관리의 적극적인 실천방법 중 하나인 정기적인 자가혈당 측정이 중요하다고 답한 인원은 7.9%에 그쳤다. 특히 혈당 측정을 하루에 몇 번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하루에 한 번도 혈당을 측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가혈당 측정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환자도 10명 중 4명이나 됐다.

홍관수 서울 세실내과 원장은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가 병원치료나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혈당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엘 헬스케어는 자가혈당 측정기 컨투어플러스 볼 판매하고 있으며 일상 속 혈당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00일간의 생활습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한국장학재단, '지식봉사단' 발대식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이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장학재단 비전홀에서 '제6기 지식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장학재단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중앙지역아동센터 소속 학생 108명에게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이들은 문화 체험과 견학 등 특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남 장학재단 감사는 "교육기부 선도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어려운 환경에 있는 꿈나무들의 미래를 밝히는 아름다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봄나들이 간편하게 떠나세요"

육포·한우떡갈비 등 최대 50% 할인 … 곰탕 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나들이나 여행, 캠핑 등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편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육개장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2만9000원, 갈비탕선물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ml/2팩)을 덤으로 준다.

'갈비탕'은 부드러운 소갈비에 인삼, 홍삼을 넣어 맑고 진한 갈비탕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육개장'은 소고기 함량이 18%로 푸짐해 든든한 한끼 식사로 좋다. '곰탕'은 100% 한우 토면 우려내 맛이 진하며 단백질, 콜라겐,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 및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곰탕, 갈비탕, 육개장 모두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어 조리도 매우 간편하다.

같은 기간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나들이에 잘 어울리는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를 4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질질한 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도 50% 할인된 3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3만5700원)와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4만2000원), 국내산 돼지고기 70%에 측엄자를 접목한 측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94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청담동 케이크&에이크업슈 작은지이의 케이크 커트 무료이용권(5만500원)과 기대보충에 좋은 브양식 갈비탕과 육개장 선물세트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김승선기자 mha0720@

한화리조트, 20일 단 하루 특가 이벤트

모바일 앱 오픈기념 반값 할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홍원기)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적인 오픈을 기념해 오는 20일 단 하루 'Thank you Friday!' 이벤트를 실시한다.

객실에서의 1박과 조식 2인이 포함된 이번 상품은 한화리조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착순 구매로 판매된다.

정기 대비 최대 51% 할인이 적용되며 이용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황재용기자

'델몬트' 17년 연속 주스 브랜드파워 1위

비농축 주스·100% 주스 등 라인업 강화

롯데칠성음료는 '델몬트주스'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조사한 '201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주스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델몬트주스는 조사가 처음 실시된 1999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켜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게 주어지는 '골든브랜드'의 영예도 안았다.

델몬트는 '주스의 정통성'과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연상되는 대표적인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도 건강 이슈와 당에 민감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농축 주스(NFC: Not From Concentrate), 설탕과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은 100% 주스 등의 라인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눈물과 웃음의 감동이 온다!

신간도서

어린이를 위한 우동 한 그릇
구리 료헤이/청조사

교훈담은 '우동 한 그릇'의 어린이 버전

25년 전 처음 소개돼 현재까지 600만명이 넘는 독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 '우동 한 그릇'의 어린이 버전이 나왔다.

원작이 주는 감동을 어린이 감성에 맞게 되살린 '어린이를 위한 우동 한 그릇'은 '가난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교훈을 어린이 독자들에게 선물한다.

▲우동 한 그릇 ▲산타클로스 ▲마지막 손님 등 총 세 편의 작품이 실려있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40여 컷의 일러스트는 감동과 진한 여운을 더한다. '우동 한 그릇'은 진정한 배려와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산타클로스'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뜻을 깨닫게 해준다. 또 '마지막 손님'은 사람 간의 사랑과 정을 따뜻하게 좇아내고 있다.

특히 세 이야기 모두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어린이들은 '물질적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부자'라는 진리를 배우게 된다.

우동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눈물과 웃음의 감동 스토리를 이제 만나보자.

/황재용기자

강동 고덕 재건축 바람에 일대 '들썩'

"전세로 같은 주공 가는데 1억 올려야" 오르지 않던 빌라도 3000만원 '껑충'

서울시 강동구 일대가 재건축 바람에 들썩이고 있다. 고덕동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며 전셋집을 찾지 못한 이주민들이 인근의 암사동·명일동·천호동 등 강동구 전지역으로 이탈하는 모습이다. 빈집 찾기는 더 어려워졌고 매매가까지 천정부지 솟아 내집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서울부동산광장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용면적 48㎡ 고덕주공2단지아파트가 3월에 5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55㎡는 6억원에 거래돼 불과 두달 사이 2000만~3000만원 가량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용 48㎡는 6500만원, 전용 55㎡에서는 최대 7000만원까지 오른셈이다.

총 2600가구 규모의 고덕주공2단지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됐다. 이미 이주를 마친 세대를 제외한 약 1000가구 정도가 새로 집을 구할 예정이다. 18일 현재 기준 640가구가 이주를 마친 상태라고 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덕주공4단지에서는 최근 총 410가구 중 실제 거주민 130가구가 이주를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31일 철거에 들어간다"며 "4월 말께 조합원 추첨이 있고 8월께 일반분양을 해 2017년 입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덕동 인근의 명일동 삼익그린1차아파트에서도 약1500가구가 이주 중이고, 내년 재건축공사 시행을 목표하고 있는 2580가구 규모의 주공3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4월 중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곧 대규모 이주가 현지에 더 있을 전망이다. 결국 4000여 가구 규모의 두 단지에서 재건축 이주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게 됐다.

그나마 6단지에서 재건축 이주수요를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동이 난 상태다. 고덕주공4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이주민들은 대부분 강동구 내에서 움직이려 하고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주공아파트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일정이 남은 6단지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주공6단지에서 거래된 전용 55㎡ 전세가는 9000만원이었다. 올 1월에는 6000만원 오른 1억5000만원에도 거래가 됐다. 전용 65㎡ 전세가는 2억4000만원으로 1년새 1억원이나 뛰었다. 같은 지역의 동일한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도 1억원이나 더 필요하다.

전셋집 구하기를 포기하고 매매로 돌아서려해도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84㎡ 아파트는 1년 전 4억7000만원에서 올 1월 4억 9000만원에 거래되며 2000만원 올랐다. 첫 입주가 있던 2011년 3억8000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명일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매든 전세든 오래된 아파트 위주고 가격이 많이 올라 실입주자들이 찾지 않는다"며 "연립·다세대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최근 신축도 많아 이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천호·암사 지역 신축빌라의 경우 2억7000만원 선에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둔촌동은 3억1000만원 선에서 거래되며 인근 아파트 매매가보다는 2억원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좀처럼 가격이 오르지 않던 빌라도 2년 전과 비교해 3000만원가량 올랐다"며 "향후 7~10년간 2만 가구 정도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라 찾는 사람이 많은데, 빌라는 아파트보다 더 발품을 팔아 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504@metroseoul.co.kr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수납기능 강화

삼성물산이 이달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에 지역 최초로 세대별 전용창고(사진)를 제공한다.

세대별 전용창고는 지하주차장에 마련됐다. 지로 실에는 레저용품 등을 바로 꺼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배치다. 지하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세대 내 부피 큰 짐도 쉽게 옮길 수 있다. 2.1m 전용고에 별도의 선반도 있어 공간효율성이 높다.

삼성물산은 전용창고 외에도 수납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했다. 우선 주방 상부장의 크기를 기존보다 10㎝ 키웠고 하부장에는 기능성 연출식 거치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양념통, 냄비, 프라이팬 등의 주방용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

세탁실 벽면에는 청소용품을 걸어둘 수 있는 액세서리를 달았다. 자녀방에는 옷장과 화장대 기능이 함께 있는 파우더형 붙박이장을 시공한다. 또 대형 복도장, 현관 붙박이장, 대형 팬트리 등을 유상옵션으로 제공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수납공간이 부족한 기존 주상복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납기능을 강화한 평면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보수단체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 수사 촉구' 서울 대치동 포스코 본사 사옥 앞에서 18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약통장 1순위자 1000만명 시대

청약제도 개편 영향 242만여명 증가

주택청약 제도 개편과 분양시장 호황이 맞물리면서 청약통장 1순위자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왔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991만4229명으로 전월 대비 242만7916명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청약제도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던 것을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기존 청약통장 2순위자가 1순위자로 편입되면서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게 됐다.

지방은 종전 그대로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가입자 수는 240만7031명이 늘어난 768만554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의 수혜 지역인 수도권 1순위 가입자는 70만5546명 증가한 233만6294명이 됐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으로 조건만 갖추면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통장 가입자만 증가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모두 합친 수도권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70만7925명 늘어난 315만471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1543만703명이다. 전월보다 20만9784명 증가한 수치다. /박선옥기자

레저시설 개발 붐, 아파트 분양도 호재

지자체별로 테마파크·리조트 등 레저시설 개발 바람이 한창이다.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 주변 주택시장 분위기까지 끌어올리는 호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레저시설은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시설로 조성되는 만큼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창원시 진해 웅동지구에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에는 폭스사가 투자하는 영화파크를 비롯해 프리미엄아울렛, 6성급 호텔, 골프장, 해양레포츠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미국 폭스사와 호주 빌리지로드쇼사와 세계적인 테마파크·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카지노로 유명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시(市)와는 '관광 카지노'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개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웅동 글로벌테마파크 예정지 주변으로 진해 남문 '시티 프라디움'이 분양에 나선다. 부산과 창원을 잇는 중간에 인지해 진해대로(2번국도)를 이용하면 진구점은 10분대, 부산 하단까지는 30분대로 출퇴근할 수 있다.

춘천 중도동에 들어서는 레고랜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부분 준공을 받아 5~6월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5011억원이 투입된 테마파크에는 호텔과 콘도, 스파, 아웃렛 등이 지어진다. 2018년 개장될 예정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리조트월드제주는 지난 2월 기공식을 열었다. 2017년부터 단계별로 개장할 예정인 리조트월드제주에는 가족형 테마파크시설, 어드벤처 워터파크, 쇼핑몰과 레스토랑 복합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6성급 호텔과 스파시설도 배치된다.

이들 지역에서도 개발 호재에 힘입어 활발한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춘천에서는 근화지역주택조합(가칭)이 '강변센트럴파크'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해동 그랑앤골드'가 공급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레저시설 개발과 함께 주변 기반시설 확충이 빨라질 경우 정주여건도 좋아지게 마련"이라며 "다만 사업의 진행상황과 속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니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

청춘? 꽃 아닌 꽃봉오리

'스물'로 첫 영화 주연 2PM 이준호

"스무 살은 꽃다운 나이라고 하잖아요. 청춘은 꽃답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꽃이 아니라 꽃봉오리라 생각해요. 어떤 꽃인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되니까요. 자신이 한 노력을 거름으로 삼아 피어오르는 꽃이죠."

오는 25일 개봉하는 영화 '스물'(감독 이병헌)에서 주연을 맡은 이준호(25)의 말이다. '스물'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동시에 간직한 채 맞이하게 되는 스무 살 청춘들의 이야기다. 이제 막 성인이 됐지만 꿈과 현실이라는 갈림길을 앞에 둔 세 동갑내기를 통해 20대의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공감하게 풀어냈다. 그룹 2PM 멤버이자 영화 '감시자들'로 연기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준호는 '스물'에서 만화가를 꿈꾸는 청년 동우 역을 맡았다.

이준호는 '감시자들'과 아직 개봉하지 않은 '협녀-칼의 기억'까지 두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햇병아리 배우에 불과한 이준호에게 '스물'은 첫 주연에 장르물이 아닌 현실적인 캐릭터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었다. 무엇보다 시나리오가 재미있었다. "2PM 투어 연습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서 우연찮게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봤어요. 시나리오가 들어왔다고 해서 읽어봤는데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김우빈, 강하늘 등 동갑내기 배우들이 함께 한다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극중 동우는 88만원 세대, 혹은 삼포세대 등으로 대변되는 청춘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캐릭터다. 아버지의 부도로 어려워진 집안 형편 속에서도 만화가의 꿈을 잃지 않기 위해 동우는 홀로 집을 나와 미술학원을 다니며 옥탑방 생활을 한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동우는 자신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여자와의 '썸'도 포기하는 애잔한 청춘이다. 그럼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영화에 따뜻한 기운을 더한다.

2006년 SBS '슈퍼스타 서바이벌'의 우승자로 JYP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된 이준호는 2008년 2PM 멤버로 데뷔하면서 스무 살을 맞이했다. 연예인으로서 탄탄대로를 달려온 것 같지만 그에게도 동우와 같은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다.

"가수가 되고 싶어 소속사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벽에 정말 많이 부딪혔어요. 잘난 친구들, 잘 생긴 친구들을 보면서 현실을 제대로 깨닫게 됐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주목도 못 받아서 많이 좌절했어요. 그때가 열일곱 살이었거든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도 결국 가수 데뷔의 꿈을 이뤘죠. 동우 같은 가난한 생활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 몰래 고생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우의 이픔을 이해할 수 있었죠."

> 현실적인 캐릭터·시나리오도 굿
> 연습생 시절 고민 떠올리며 몰입
> 배우로서도 '한방' 남기고 싶어요

현실적인 이유로 연애까지 포기하는 동우의 미음도 십분 이해가 갔다. "'썸'을 포기하고 바깥을 바라보던 동우의 뒷모습이 진짜 쓸쓸해 보이죠? (웃음) 정말 공감이 갔어요.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스물연곱 살인데 누구를 좋아해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바쁘고 힘들고 신경쓸 게 많다 보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도 포기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우가 더 와 닿았어요."

'감시자들'부터 '스물'까지 세 편의 영화를 경험하면서 이준호는 "배우로서 자신감이 확실히 생겼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늘어난 자신감만큼 부족함과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아쉬움도 크고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 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늘 있어요." 지금 이준호에게 연기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을 동시에 갖게 하는 자극제다.

"배우로서는 지금이 딱 스물인 것 같아요. 봉오리 안에 있는 것이 꽃이길 바라고 있죠(웃음). 제 인생에 '한방'으로 남을 멋진 작품, 그런 최고의 연기를 만나고 싶어요. 물론 가수로서도 더욱 만족하고 싶고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민주) 디자인/박은지

star bag

세련된 섹시미로 컴백

걸그룹 **미쓰에이**가 오는 30일 새 앨범 '컬러스'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소속사는 "고급스러운 퍼포먼스와 콘텐츠로 다른 걸그룹과 차별화된 앨범을 통해 한층 더 세련된 섹시미를 뽐낼 것"이라며 "당당하고 적극적인 가사로 걸그룹의 위엄을 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길거리 공연으로 만나요

걸그룹 **크레용팝**이 오는 21일 오후 8시 서울 동대문 두타 앞 광장에서 컴백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FM'을 공개한다. 소속사 후배 그룹 '케이브이지'와 발라드 듀오 '짠짠', 트로트 가수 허만영 등이 게스트로 함께한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명동, 코엑스, 홍대 등지에서 게릴라 공연도 펼칠 계획이다.

"열애? 친한 오빠·동생일 뿐"

개그맨 **장동민**과 가수 나비가 18일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했다. 장동민 소속사와 나비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은 라디오를 하면서 친해진 선후배 사이로 라디오 방송 뒷풀이에서 친하게 농담을 주고 받는 모습이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친하게 지내는 것은 맞지만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화 '파울볼'로 첫 내레이션

'야구 신' 가수 **조진웅**이 김성근 감독과 고양 원더스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파울볼'로 첫 내레이션에 도전했다. 그는 "프로야구 2군 리그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고양 원더스의 끝나지 않은 도전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화는 내달 2일 개봉한다.

신인 걸그룹 CLC '착한 데뷔'

신인걸그룹 CLC가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손진영 기자 son706

발달장애 아동 위해 길거리 공연 펼쳐 — 수록곡 '사랄라' 음원 수익도 전액 기부

포미닛와 후배 걸그룹 CLC(멤버 예은·유진·손·승연·승희)가 드디어 대중 앞에 섰다.

4명의 한국인 멤버와 1명의 태국인 멤버로 구성된 CLC는 크리스탈 클리어(Crystal Clear)의 약자로 언제나 영롱한 빛을 발하는 크리스탈처럼 변치 않는 매력을 지닌 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CLC는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데뷔 앨범 '첫 사랑' 공연을 펼쳤다.

이날 쇼케이스는 악스홀 앞에 마련된 야외 공터에서 시작됐다. 데뷔 전부터 발달장애 아동 기금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버스킹(거리공연)을 해온 CLC는 이날 팝가수 케이티 페리의 '로어(ROAR)'와 아델의 '롤링 인 더 딥(Rolling In The Deep)'을 불렀다. CLC의 '착한 데뷔'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이들의 선행은 데뷔 앨범으로도 이어진다. 수록곡 '사랄라(Shalala)' 음원 수익금은 발달 장애 아동들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공연장으로 무대를 옮긴 CLC는 수록곡 '첫 사랑'을 선보였다. 리더 승희는 "조금씩 사랑을 알아가는 소녀의 마음을 표현한 발라드 곡"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쇼케이스의 대미를 장식한 노래는 데뷔곡이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페페(PEPE)'였다. '페페'는 재치 넘치는 가사가 매력적인 레트로 댄스곡으로 평균 연령 18세 다운 CLC의 톡톡 튀는 매력을 엿볼 수 있다. 이단옆차기와 영광이 작곡했으며 노랫말은 롱캔디가 썼다.

이들의 목표는 선배들의 뒤를 이어 큰 사랑을 받는 것이다. 유진은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버스킹도 큰 도움이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예은은 "지나 선배가 어떻게 하면 카메라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지도 알려줬다"고 전했다. 승연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싶다. CLC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갖는 게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첫 쇼케이스를 마친 CLC는 19일 데뷔 앨범 '첫 사랑'을 발매한다.

/김지민 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독립영화 축제 열린다

들꽃영화상 내달 9일 개최

저예산 독립영화를 재조명하고 독특하고 창조적인 작품들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제2회 들꽃영화상이 다음달 9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문학의 집-서울'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들꽃영화상은 미국의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영국의 브리티시 인디펜던트 필름 어워드처럼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독립영화를 주목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됐다. 후보작은 매해 3월 전년도 개봉 영화 중 순 제작비 10억 미만의 한국 저예산 독립영화들 검토해 선정된다.

올해는 지난해 개봉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중 총 21편을 후보작으로 선정했다.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서울극장에서는 후보작을 만날 수 있는 특별 상영회가 열린다.

/탈별호 기자

"실제론 둘째… 동생 챙겨요"

착않여 도지원 "한때 킬미힐미' 애청자"

배우 도지원(사진)이 실제 가족 관계를 이야기했다.

도지원은 KBS2 수목극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김현정으로 분해 열연 중이다. 강순옥(김혜자)의 첫째 딸이자 동생 김현숙(채시라)과 티격태격하는 인물이다. 성공한 뉴스 앵커지만 젊은 후배들에게 밀려 쓸쓸한 상황을 겪고 있다.

도지원은 실제 2남2녀 중 둘째다.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맏딸처럼 행동 한다"며 "나는 어른들 선배들을 어려워한다. 윗 사람을 더 생각해야 하는데 언니보다는 남동생을 더 챙긴다"고 말했다.

이어 "언니가 전체적으로 누르는 스타일이라면 나는 세심하다"며 "극 중 김현정은 또 부러지고 잔안을 이끌어가야 한다.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야 했다. 주변 환경에 현정에겐 짐이고 지원한 감성 속에서 똑똑한 척하는 인물이 된 것"이라고 역할을 소개했다.

작품은 첫 방송 후 경쟁작 MBC '킬미힐미'를 제치고 3회만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도지원은 "출연하기 전까지는 '킬미 힐미' 애청자였다. 좋은 드라마라 경쟁이 기분 좋지만은 않았다"며 "시청률은 숫자에 불과하다. 공감 형성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다. 출연진이 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됐을까를 보여주는 과정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말했다.

/연휴진 기자 leonh898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사랑지들의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00 2TV 저녁 생생정보	10 백투슈 오늘 저녁	20 [illegible]	00 [illegible] 25 [illegible] Pop! Pop! <재> 40 포도 [illegible] <재> 55 엄마가 [illegible]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달콤한 비밀 (82회)	15 빛나거나 미치거나 (18회) 55 MBC 뉴스데스크	00 달려라 장미 (67회)	05 [illegible] <재> 20 [illegible] 30 [illegible] Family <재>
20시	25 달래된 내사랑 (64회)	30 [illegible] 55 [illegible] (4회)	55 [illegible] (86회)	00 SBS 8 뉴스 55 [illegible]	20 [illegible]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기황스토리 눈		17 세계의 교육현장 <재> 30 다큐 오늘 40 EBS 스타 [illegible]
22시	00 [illegible] 55 [illegible]	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8회)	00 킬미힐미 (2회)	00 하이드 지킬, 나 (8회)	00 EBS 인문학 특강 <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illegible]	10 해피투게더	15 [illegible]	15 자기야 - 백년손님	20 [illegible] <재>
24시	30 [illegible]	47 [illegible] 55 [illegible] <재>	35 MBC 뉴스 24	55 나이트라인	00 [illegible] <재> 10 [illegible]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포츠
18시	30 [illegible] (19회) <재>	0 [illegible] (10회) <재>	00 수요미식회 (3회)	00 TV 동물농장 (401회)	19:00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원주 동부 VS 인천 전자랜드 [illegible] MBC스포츠+
19시	55 JTBC 뉴스룸	00 오늘 뭐 먹지?	00 오늘 뭐 먹지? (33회) 30 오늘 뭐 먹지? (45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illegible] (10회)	00 오늘 뭐 먹지? (63회) 30 올리브쇼 2015 (8회)	00 [illegible]	
21시	40 [illegible] (97회)	40 [illegible] (4회)	30 2015 [illegible] (3회)	00 [illegible] (9회) 30 [illegible] (12회)	
22시			30 오늘 뭐 먹지? (23회)	00 [illegible] (12회)	
23시	00 [illegible] (17회)	00 [illegible] (4회)	00 오늘 뭐 먹지? (6회) 30 올리브쇼 2015 (9회)	00 [illegible]	
24시	20 [illegible] (18회)	20 수요미식회 (5회) <재>	30 [illegible] (27회)	00 [illegible] (12회)	

3월 14일 토 밤 11시 첫방송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5
Real
Queen
tcast

류현진 수비진 난조 3실점

3이닝 46개 투구 합격점 추신수와 맞대결 불발

류현진(28·LA 다저스 사진)이 두 번째 시범경기에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지만 수비진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3실점 했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3이닝 3피안타 1볼넷 3실점(2자책점)을 기록했다. 46개의 공(스트라이크 30개·볼 16개)을 던지며 삼진은 2개 뽑아냈다. 직구 최고 시속은 91마일(약 146㎞)을 찍었다.

추신수(33)가 가벼운 왼쪽 통증으로 결장함에 따라 기대했던 류현진과 추신수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류현진은 지난 1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첫 시범경기 선발 등판에서 2이닝 퍼펙트로 위력적인 구위를 뽐냈다.

이날 역시 류현진의 구위는 좋았다. 하지만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1·2회 연속 3자 범퇴로 순조로운 출발한 류현진은 3회 선두타자 로빈슨 치리노스를 유격수 방면 깊은 내야안타로 내보낸 뒤 제이크 스몰린스키와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을 내줬다. 마지막 직구가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한 것으로 보였으나 심판의 손이 올라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에드 루카스의 보내기 번트로 1사 2, 3루의 위기에 몰린 류현진은 마단을 상대로 몸쪽 공을 던져 1루수 앞 땅볼을 유도했다. 그러나 1루수 스캇 반 슬라이크가 타구의 바운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뒤로 흘리면서 순식간에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다. 또 포수 야스마니 그랜달의 2루 송구까지 빠지며 3실점으로 늘었다.

류현진은 1-3으로 뒤진 4회말 마운드를 후안 니카시오에게 넘겨주고 교체됐다. 양팀 합쳐 실책 7개가 쏟아지는 졸전 속에 경기는 11-11 무승부로 끝났다. /유선준기자

손흥민(오른쪽)이 18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선발 출전해 디에고 고딘과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손흥민 존재감 높였다

레버쿠젠 승부차기 끝 아틀레티코에 무릎… UEFA 챔스리그 8강 탈락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의 두 번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시즌이 아쉽게 막을 내렸다.

레버쿠젠은 18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지난달 26일 1차전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레버쿠젠은 두 경기 합계 1-1로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점수를 내지 못해 승부차기 끝에 3-2로 져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손흥민은 선발로 나서 후반 32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공격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다. 전반 16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에미르 스파이치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슛을 때려봤으나 수비 벽에 걸렸다. 이어 후반 22분 라르스 벤더가 내준 공을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미묘 앙힐 보야가 잡았다.

전반 27분 마리오 수아레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레버쿠젠은 만회골을 넣으려고 공세를 펼쳤지만 무위로 끝났다. 레버쿠젠은 이날 패배로 2시즌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실패하며 16강에 만족해야 됐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번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3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벤피카(포르투갈)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결승골로 챔피언스리그 본선 첫 골을 신고했고, 제니트(러시아)와의 조별리그 4차전에서는 팀의 2골을 모두 책임졌다.

UEFA는 2경기 모두 '베스트 11'에 손흥민의 이름을 올렸다. 팀은 챔피언스리그 16강을 멈췄지만 손흥민은 특급 공격수로 한단계 도약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김보경 7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

슈틸리케호 에 처음으로 승선한 김보경(위건·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풀타임 활약을 이어갔다.

김보경은 18일(한국시간) 영국 위건의 DW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챔피언십 38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7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이다.

그러나 위건은 후반 9분 후머드의 트로이 디니에게 페널티 결승골을 얻어맞고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더 내줘 0-2로 졌다. 이날 패배로 위건은 7개월이 넘도록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카디프시티(2부리그)에서 지난달 초 위건으로 이적해 벌써 2골을 뽑아낸 김보경은 이날 팀 패배를 막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보경은 전날 발표된 우즈베키스탄·뉴질랜드 평가전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보경이 태극마크를 단 것은 지난해 9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서 처음이다. /유선준기자

OK저축은행의 창이냐 한전의 방패냐

프로배구 PO 20일 개막

겨우내 코트를 뜨겁게 달군 프로배구가 5개월의 정규리그 대장정을 마치고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NH농협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플레이오프는 20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여자부 플레이오프(3전2승제) IBK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의 1차전을 시작으로 개막한다.

남자부 3전 2승제 플레이오프는 21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OK저축은행·한국전력의 대결로 시작한다.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팀은 27일 여자부 정규리그 우승팀 도로공사, 28일 남자부 정규리그 1위 삼성화재와 각각 5전 3승제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어 올 시즌의 최종 승자를 가린다.

남자부 포스트시즌의 서전을 장식하는 두 팀은 모두 이번이 처음 플레이오프 진출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첫 시즌을 경험한 '막내 구단'이지만 외국인 공격수 로버트 랜디 시몬을 중심으로 송명근·송희채·이민규 등 신예 삼총사가 팀을 보태 올시즌 돌풍을 일으켰다.

한국전력은 화려하지 않으나 꾸준히 제 몫을 한 용병 미티르 쥬리치에 전광인·서재덕의 토종 공격수가 조화를 이뤘다.

이들의 대결은 저축은행의 화려한 공격과 한국전력의 단단한 수비가 벌이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요약할 수 있다. /유선준기자

아토피에 도움되는 음식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한방에서 아토피는 몸 속 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다면 체내에서 열을 내는 열성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 중에서는 기름진 부위가 열성이 강하며, 흰 살 생선 보다는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열성이 강하다. 채소는 육류보다는 찬 성질이 많지만 채소 중에서도 고추, 생강, 파, 부추 같은 음식들은 열성이며 연근, 감자, 미나리 같은 채소들은 열을 식혀주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아토피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아토피를 잘 다스리려면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면역 체계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다. 한의학에서 음식의 맛은 각각의 장기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을 가진 오미자는 오장육부에 두루 영향을 주어 면역력을 높이는 본초이기도 하다. 특히 오미자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이 성분들이 피부와 점막의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한다. 또한 폐가 약하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건조함도 심해지게 되는데, 오미자가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렵고 건조한 아토피 증상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양질의 섬유질이 풍부한 해조류도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키는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해조류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며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특히 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장 내에 발생한 독소가 피부에 영향을 주기 쉬운데, 해조류에 풍부한 섬유질이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

쑥도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 쑥에 풍부한 비타민 A와 비타민 C 등의 성분들이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한다. 특히 쑥은 간에 작용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소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해서 각종 피부 트러블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32세인데 올해 좋은 인연 만날까요
6·10월 이성운… 혼수 다툼 주의를

두둥벤 여자 84년 12월 02일 양력 오후 3시 30분

Q 여자 84년 양력 12월 02일 오후 3시 30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결혼운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4년 넘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현재는 혼자입니다. 친구들도 거의 다 결혼하고 주변에서도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있는데요, 올해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요?

A 결혼이란 정의를 보면 선현 말씀이 틀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정체이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 이라는 성경구절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환희하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겠지요. 사랑은 남녀 사이에 그리고 사랑이외에는 바라는 것도 없이 한없이 깊어질 수 없어야 할 것이니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싫어지면 상대방의 가슴 아픔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남이요 이별이며 이어지면 결혼입니다. 귀하는 순수와 고귀함의 상징인데 6월 10월 원대한 이상(理想)이 등 투하는 정관(正官)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의 남자 즉 의리가 있고 단정하며 정도를 가고자하는 속성을 의미하는 이성을 만날 시기가 되니 좋은 결과를 이루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나 욕궁(慾宮)에 작(爵)하니 사교적이며 유흥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혼수문제로 다툼 수가 있으니 재후 이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다가 별 탈 없이 마무리가 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가 밝고 사물의 처리가 분명하여 사업보다는 조직생활에 유리합니다. 장단점을 헤아려 눈높이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18년이나 되어야 하나 어려운 점을 유의하세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두 사람의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이 현실적으로 따라주어야 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돈이라는 조건이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나타나면 궁합이 맞는지 그때 다시 상담 의뢰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3/19 木 일출 06 38 일몰 18 4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9.co.kr

감기 바이러스는 공기보다 접촉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절기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반드시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지수
감기가능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www.ncb.or.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3			
			4				9	
9			8			1		5
		9		4	6			1
		4				7		
1			5	3		4		
6		7			8			4
	2				4			
			2			6	8	

	4	2	6					
				1			2	9
				8	2			
1		8					6	
7				3				5
	5					3		1
			8	6				
3	2			5				
					7	4	9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보누스
펜시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3월 19일 (음 1월 29일) 사주스타 www.sajustar.com 1588-3311-6400

쥐 48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0년생 남의 시치를 버리세요. 72년생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길입니다. 84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소 49년생 지금까지의 말을 고수하면 운이 따를 것입니다. 61년생 무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년생 오늘은 근신을 해 둡니다. 85년생 건강 악화 우려로 가족에게 근심 주게 됩니다.

호랑이 50년생 지출을 좀 줄이세요. 62년생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세요. 74년생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있습니다. 86년생 옛 것은 다 정리해 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세요.

토끼 51년생 조금은 빡빡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63년생 지금 부와 명예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75년생 사람들의 길에 구름 기울어야 합니다. 87년생 몸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쓰세요.

용 52년생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64년생 떠도는 낭만적인 연애를 해야 합니다. 76년생 가까운 곳에 여행을 떠나는 것이 길합니다. 88년생 이성에게 키스를 당할 수 있습니다.

뱀 53년생 옛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65년생 여주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할 것입니다. 77년생 조금씩 일이 나아집니다. 89년생 상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말 54년생 겸손하는 좀 더 큰 경험을 하게 될 것 입니다. 66년생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78년생 여행은 다음에 떠나세요. 90년생 자금 필요한 것은 생기겠습니다.

양 55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67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귀하의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91년생 좋은의 숫자는 8번입니다.

원숭이 56년생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길합니다. 68년생 새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80년생 앞으로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92년생 배우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닭 57년생 깊이 생각한 뒤 실마를 따른다면 즐거움 날이 됩니다. 69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1년생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93년생 신중이 나아가야 성과가 있습니다.

개 58년생 어려움 속에 헤쳐 왔다고 자랑은 금물. 70년생 의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나옵니다. 82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집니다. 94년생 윗사람의 협력을 받게 됩니다.

돼지 59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71년생 작은 힘은 해결됐으나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83년생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95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중대 학사개편 반민주적 폭력"

성대 교수협 "대학서 직업교육 시킨다고 청년 실업 해결 안돼" … 논란 확산

내홍을 겪는 중앙대 학사구조 개편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성균관대 문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중앙대 교수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며 중앙대 학사 개편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앙대는 지난달 26일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학과제를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앙대 교수대표비상대책위원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 찬반투표에서도 응답자 555명 가운데 513명(92.4%)이 대학본부의 계획안을 반대했을 정도다.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용구 중앙대 총장은 확고했다. 이 총장은 지난 12일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계획안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라며 교수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교수와 학교의 진흙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학생회 성명서를 두고 논란이 한층 커졌다. 학교가 총학생회의 성명서 초안을 입수해 총학생회의 입장을 왜곡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학생회의 성명서와 홍보실에서 인용한 성명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달랐다. 홍보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학생회는 "학생을 볼모로 삼아 논리적 근거 없이 편향적인 주장을 편다"며 교수 비대위를 규탄했다. 하지만 이는 총학생회가 현문광장에 게시하기 전의 성명서 초안에만 담긴 내용이다. 실제로 총학생회가 직접 게시한 성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총학생회의 성명서에는 이번 선진화 계획에 '찬성'한다는 표현 대신 취지의 추진 배경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홍보실 보도자료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혁신에 찬성한다"라고 표현했다.

더욱이 성균관대 문과대 교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번 논란은 장외싸움으로 번졌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중앙대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이라는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안은 반민주적 폭력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학에서 직업 교육을 시킨다고 청년 실업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궁궐의 봄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진 18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의 산수유나무가 꽃 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은폐·부실 교육 공사 업체 벌점 부과 강화

서울시가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건설공사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를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를 겪은 후 민선 6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공사장 안전을 꼽았다.

또 근로자를 공사장에 투입하기 전 위험 요인을 알리지 않으면 안전한 작업 절차가 무시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대형 재해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자에게 보고해 사태를 신속히 수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30건 중 보고되지 않은 게 22건, 지연 보고된 게 7건이었다. 즉시 보고가 이뤄진 사고는 단 1건밖에 없었다. 지난해부터 부실 관리에 대한 벌점 부과를 강화, 올해부터는 벌점 부과 기준에 근로자 안전 교육을 하지 않거나 대형 재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작업자는 매일 공사 전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와 주의사항을 들어야 한다. 정기보건교육과 작업 내용 변경 시 재교육도 필수다.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보고 기한을 '지체없이 즉시'로 규정했다.

이러한 사고는 유선으로는 사고 발생 즉시, 서면으로는 1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상세보고와 재발 방지 대책 보고는 1주일 내 하라고 적시됐다.

벌점이 20점까지 누적되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게 제한된다. /조현정기자

"푸드트럭을 몰려라" 정부가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나선 가운데 18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앞에서 푸드트럭을 찾은 창업 관심 학생들이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자·치매후견센터 개소

한국치매협회가 고령자나 치매노인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고령자·치매후견센터'를 18일 개소했다.

센터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고령자의 후견 등록을 돕고 후견감독인으로 후견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 치매협회는 법학교수와 법률기·회사 등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02-766-0716이나 이메일(support0710@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치매협회는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00세 시대 고령자의 권리옹호와 지원'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황재용기자

필요한 공공서비스 골라 본다

행정자치부는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3.0 활용 사례들을 18일 소개했다.

먼저 '맘·가정 독톡 앱'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성, 여성, 임신·출산·육아 등 단어를 선택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 중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 보여준다.

또 '안심귀가서비스'는 어린이나 여성, 노인 등 약자에게 안전한 귀갓길을 안내하고 보호자에게는 귀가자의 이동 정보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학교 내에서만 운영되던 '자유학기제'도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 현장으로 운영 범위가 확대돼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종합포털'에서는 소득 가격·구매 유형별로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택배 앱'을 이용하면 구입한 물건의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인사

■ 조달청

◇ 과장급 승진 ▲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장 노병선 ▲ 품질점검실장 최진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손병진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성명현 ◇ 과장급 전보 ▲ 국제물자국 원자재비축과장 이인국 ▲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장 정경모 ▲ 김원지방조달청장 한응자 ▲ 제주지방조달청장 박시호 ◇ 서기관 승진 ▲ 전자조달국 정보기획과 김용임 ▲ 국제물자국 원자재총괄계 최경근 ▲ 외자구매과 김유현 ▲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이을일 ▲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 김경규

■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 전무이사 ▲ 경영기획본부장 강해선 ◇ 상무이사 ▲ 회원사업본부장 박동민 ▲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이경상 <보임> ▲ 경제조사본부장 전수봉 ▲ 국제본부장 강호민 ▲ 공공사업본부장 박종갑

■ 한국영상자료원

▲ 경영기획부장 김보연 ▲ 보존기술센터장 조소연

■ CJ헬로비전 청주방송

▲ 기획제작국 선임팀장 이주호 ▲ 기획제작국 제작팀장 하윤봉 ▲ 기획제작국 미디어사업팀장 이동기 ▲ 편성제작국 제작팀장 신현표

부고

▲권혁출씨 별세, 동유(동아일보 정치부 차장)·동일 분석상관학연구소 연구원)·동연씨 부친상, 김지영(동아일보 문화부 차장)씨 시부상, 이호준(부산 해사고 원장)·이철재(남경주유소 대표)씨 장인상 = 17일 오후 6시4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2-2072-2017

▲도희건씨 별세, 도보은(현대자동차 상무)·전 금융감독원 외환총괄팀장)씨 부친상 = 16일 오전 0시, 대구 국희관 201호, 발인 20일 오전 7시 02-3484-8900

▲ 김건범(중앙일보 전 대표이사)씨 별세 = 16일 오전, 수원시연화장 측백실, 발인 20일 오전 10시 30분 031-218-6703

▲김주예씨 별세, 손수관(기획재정부)씨 모친상, 김가균(동양엔지니어링 대표)씨 장모상 = 17일 오전7시, 전남 진도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8시 061-544-4744

▲ 김억채씨 별세, 최남현(코리아헤럴드 전 주필)·석인·동미 모친상 = 17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19일 오전 8시 02-2019-4000

▲ 노분옥씨 별세, 박원구(지멘스헬스케어 대표)씨 모친상 = 17일 오전 5시43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 발인 19일 오전 6시 031-787-1500

▲ 신말옥씨 별세, 신윤미(OBS 광고영업)씨 부친상 = 17일 오전, 군산 은파 장례문화원 2층 특실, 발인 19일 오전 063-445-4444

청년 열에 하나는 '백수'

1999년 이후 최악…노동시장 왜곡·경기 부진 여파

경기 부진과 노동시장 왜곡 여파로 청년 실업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1.1%를 기록했다.

2월 청년 실업률은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부진으로 전체적인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청년 실업률 추이

청년(15~29세)실업률 (단위:%)

9월 2014년	10월	11월	12월	1월 2015년	2월
8.5	8.0	7.6	8.5	9.2	11.1

자료:통계청

2월 실업자 수는 12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17만8000명) 대비 2만5000명(2.1%) 증가했다. 실업률은 4.6%로 전년 동월(4.5%)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적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2.5%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10.3%)정부가 이 지표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2월 취업자는 251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6000명(1.5%) 늘었고 취업률은 58.8%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물을 아낀 선조들의 지혜 홍검무가 세계 물의 날 주간을 맞아 1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물 한 방울도 아낀 우리 선조들 물 주제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10대 신용카드 위조단 검거 인터넷에서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위조방법을 성인에게 전수한 10대들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증거물. /연합뉴스

'분노 범죄' 해결에 프로파일러 나섰다

권일용 팀장으로 TF 구성…분노·충동 범죄 대응 전략 연구

최근 들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충동형 범죄가 문제화되자 국내 프로파일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경찰청은 권일용 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팀장을 팀장으로 프로파일러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노 충동 범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권 팀장은 과학수사기법으로 2006년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 2007년 제주 양지승양 살해사건, 2009년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2010년 부산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굵직한 흉악 범죄 해결에 기여한 바 있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다.

프로파일러들이 분노 충동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이런 범죄가 아직 개념 정립도 안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분노 충동 범죄는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살해하는 유영철, 강호순 등 사건과 달리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특별한 인과관계도 없다.

권 팀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사회적 배제의 느낌, 상대적 박탈감이 이같은 분노 충동 범죄의 비탕에 깔렸다고 보고 있다.

프로파일러 TF는 외국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학계와 협력해 분노·충동 범죄의 촉발요인과 궁극적인 동기를 밝히고 이를 세부 유형별로 개념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분노 충동 범죄 발생의 환경적·개인적 특징을 규명해 잠재적 분노 충동 범죄 위험자에 대한 측정 도구도 개발한다.

분노·충동 범죄의 통계 기준을 마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측정 도구로 잠재적인 분노 충동 범죄자를 가려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한달새 7억원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적발

한달 사이 7억여원을 뜯어 중국 내 총책에게 송금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인출책 김모(29)씨와 통장 전달책인 중국동포 전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 93만원과 체크카드 6장을 압수하는 한편 대포통장 명의자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10일 사이 1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7억4000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을 사칭하거나 대부업체를 빙자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중간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다가 달아난 다른 인출책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조현정기자

감기약·소화제 가격 천차만별

약국·지역따라 최대 3.5배 차이

감기약 소화제 등 자주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가격이 약국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14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자주 쓰이는 50개 품목의 약국별 최고가와 최저가는 적게는 1.4배 많게는 3.5배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감기약(4종) ▲소화제(4종) ▲자양강장제(7종) ▲파스류(4종) ▲해열진통제(4종) ▲외용연고(3종) 등 약의 효능별로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선정해 전국 시군구 2500여 개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가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관절염 패치인 트라스트패취는 서울·부산·대구·충북 등의 일부 약국에서 1곽(3매)에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진안의 한 약국에서는 7000원, 인천 남구에서는 최고 6500원에 구입해야 했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3.5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감기약인 '하벤허브캡슐'도 최저가는 1200원(경기 하남), 최고가는 4000원(충남 홍성)으로 조사돼 3.3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해열진통제 '펜잘큐정'(최고 5000원-최저 1800원), 파스제품 '제놀쿨카타플라스마'(최고 3500원-최저 1300원), 소화제 '베아제정'(최고 4500원-최저 2000원) 등 50개 품목 중 20개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2배 이상이었다.

아울러 같은 지역 내 약국들 사이에서도 약값 차이가 컸다. 해열진통제인 펜잘큐정은 서울 시내 평균 가격이 2226원이다. 그렇지만 용산구 일부 약국에서는 5000원을 지불해야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반면 동작구나 양천구, 종로구 등에서는 1800원이면 구입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출범

정부 비정규직 대책 폐기·최저임금 인상 요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국내 300여 개 단체가 모여 우리나라 '장그래' 살리기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8일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전국의 장그래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많이'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비정규직 대책도 폐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전국을 돌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